

직 이 단 체 News

가톨릭약사회

Korea Catholic pharmacist Association

나눔으로 함께해요.

외국인 노동자 무료진료소 라파엘병원약국



라파엘약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가톨릭약사회원들

우리나라 명절 중에 제일 큰 명절인 설날(2006년 1월29일) 젊음과 낭만의 거리 서울 혜화동 대학로거리의 한켠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인술의 현장'이 펼쳐졌다.

가톨릭약사회원 10명은 이날 오후 약 400여 명의 외국인 근로

자 환자들(내,외과, 피부과, 안과 등)의 처방전을 조제하여 투약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이들 가톨릭약사회원들은 매 주일마다 오후에 서울 동성고등학교 강당에 마련되는 라파엘클리닉 진료소에 모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고 진료 각과에서 발행되는 처방전을 조제 투약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라파엘 병원은 강당4층 가운데 홀을 중심으로 좌우의 좁은 복도를 따라 내과,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약국 등 과목별 간이 진료소가 칸막이로 나뉘어져 웬만한 '아전병원'을 방불케 한다.

이들은 코리안 드림을 품고 한국 땅에 온 이국의 노동자들에게 육체적 치유의 전도자일 뿐 아니라 가족과도 같은 정신적 안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의 따뜻한 웃음 속에서 소외된 자들과 더불어 사는 삶의 기쁨이 묻어난다.

가톨릭간호사협회

The Korea Catholic nurse Association

제 28회 정기대의원총회 및 피정 실시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는 2006년 2월 11일(토)에서 12일(일)까지 제 28회 정기대의원총회 및 피정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다. 2월 11일에 실시한 피정은 '가족건강과 성화'를 주제로 김정수 신부님(대전평화방송사장)의 강의로 이루어졌다. 이튿날 12일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임원개선이 있었다. 박혜재(막달레나,용인시노인



복지회관 관장)회장이 연임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으며, 감사로는 김혜자(아가다) 수녀(대전성모병원 호스피스과)와 김정단(데레사, 전 강동성심병원 간호부장)이 선출되었다. 2명의 부회장도 그대로 연임되어 제 1부회장은 김남초(세실리아, 가톨릭대 간호대학 학장) 교수, 제2부회장은 이봉숙(마리아네스, 신촌세브란스병원) 간호사가 봉사하기로 하였다. 연임된 박혜자 회장은 회원 배가운동에 전 회원이 힘써 줄 것을 부탁하였다.

학술프로그램

6월 22일(목)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성가족과 건강-건강한 부부일치 및 자녀양육'을 주제로 가톨릭대 성의교정 강남성모병원 2층 강당에서 학술 프로그램을 가질 예정이다. 참가대상은 가톨릭간호사 및 일반 간호사나 일반인들도 참석이 가능하다.

전국 가톨릭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 연합 피정

8월 26일(토)~27일(일) 양일간 본 협회 소속 전주교구 가톨릭 간호사회(회장:최덕자)의 주관으로 '전국 가톨릭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 연합피정'을 전주교구 천호성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간호대학생의 참가비는 무료이다.
 행사문의 : 총무 정 연(율리아나), jungyun67@paran.com, mobile : 016-361-2729

가톨릭의사협회

The Korea Catholic medical Association

한국가톨릭의사협회지 창간 30주년 기념호 발간

한국가톨릭의사협회는 한국가톨릭의사협회지 2005년 제30권 1호를 발간하였다. 창간 30주년 기념호 (총 352면)로 발간된 이번 협회지는 “한국가톨릭의사협회의 바람직한 미래” 및 “호스피스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한 특집과, “성체줄기세포 및 배아줄기세포” 및 “노인의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권말부록으로 1969년 창간호로부터 2004년 협회지까지의 목차, 협회 연혁, 2005년 교구별 가톨릭의사회 활동, 그리고 교구별

가톨릭의사회 주소록이 실려 있다.

한국 가톨릭의사협회 총회 및 피정 개최

한국가톨릭의사협회는 4월 1일부터 2일간 충남 공세리성당 피정의 집에서 제38차 한국가톨릭의사협회 총회 및 연례 피정을 개최하였다. 대전교구 가톨릭의사회(회장 고효진)의 준비로 진행된 이번 총회 및 피정은 각 교구 가톨릭의사회원 및 가족 40여명이 참석하여, 박재만 (대전성모병원장) 신부님의 강의(당신도 성인이 될 수 있다), 십자가의 길 기도, 고백성사, 만남의 시간, 총회, 파견미사 (최영식 지도신부님)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세계가톨릭의사협회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세계가톨릭의사협회 총회 및 학술대회가 5월11일부터 14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었다. 78개국의 가톨릭의사협회회원이 참석하여 “Catholic physicians, globalization, and poverty”를 주제로 나흘간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에서 가톨릭의사협회 최영식 지도신부님, 나종구 회장, 강준기 명예회장, 고영초 건국대학교 교수가 참석하였다.



가톨릭대학교

획기적 유방암 조기진단시약 개발 성공



우리나라 여성이 가장 많이 걸리는 유방암을 간단한 혈액검사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진단제가 국내 대학병원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가톨릭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 유방센터 정상설 교수와 산부인과 김진우 교수 연구팀은 기존 유방암 검사에 비해 진단

단효율이 4배 이상 높은 브레첵(BreaCheck)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브레첵은 조기 유방암에서 83.3%의 양성 반응을 보여 유방암 조기 발견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라이온스 협회와 안은행 공동운영 협약 체결

지난 3월 2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와 강남성모병원 안은행 간 공동운영을 위한 협약이 체결되었다. 생명존중이념을 바탕으로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시력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주는 안구기증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의료발전과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가재진 기자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심장센터 개소

늘어나는 심혈관계 질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6년 2월 9일 구관 5층에 심장센터를 개소했다. 4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작년 11월부터 약 3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완공된 심장센터는 최첨단 장비와 인력이 보강되어 환자들에게 진단 수술 입원에 이르는 모든 진료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한다.



장영실과학문화상 의료부분 대상- 성형외과 박대환 교수



지난 4월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2006년도 장영실과학문화상' 시상식에서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성형외과 박대환 주임교수가 의료부분 대상을 수상하였다. 박교수는 현재 국내 유일의 눈 성형 전문 서적인 '안성형외과학'을 출간하였고 대한눈성형외과 회장을 맡고 있다.

연구윤리위원회(IRB), 국제 인증서(OHRP/FWA) 획득

대구가톨릭대학교의 연구윤리위원회(IRB)가 국제인증서(OHRP/FWA)를 취득했다. 연구윤리위원회(IRB)는 의약품·의료기기, 기능성식품의 연구 및 유전자연구, 줄기세포연구와 관련된 모든 의학연구를 위하여 작성된 연구계획서의 윤리성



과 효율성 및 안정성, 연구방법론에 관한 지속적인 심의를 위하여 연구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된 상설위원회다.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새로운 약물과 기구, 유전자 치료 등에 대한 많은 연구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태영 기자

대구파티마병원

고객만족활동 전개

고객만족위원회(와우!파티마)는 2006년을 맞이하여 고객만족을 현실화하기 위한 CS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현재 '와우!파티마'에서는 친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요일별 조회 프로그램 운영, 자체 CS팀 구성을 통하여 고객만족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세포치료센터 개소

대구파티마병원은 가톨릭중앙의료원과 2월 23일 세포치료 연구 및 연구 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세포치료센터를 개소했다.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 및 연구를 위해 양기관은 가톨릭중앙의료원 가톨릭세포치료사업단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하여 연구 및 임상적용을 수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채병진 기자



성기롤로병원

성기롤로병원과 GFEZ(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병원 운영 협약 체결

순천성기롤로병원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GFEZ)이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외국 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권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순천성기롤로병원을 이용함으로써 더욱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받게 되었다.



의료봉사단 발족

개원 37주년을 맞은 순천성기롤로병원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의료봉사를 시작하였다. 지난 3월 31일 봉사를 자원한 의료진과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의료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4월 1일 전남 순천시 외서면에서 첫 번째 의료봉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병원의 홍보나 일시적인 행사가 아니라 순수한 지역봉사라는 점에 근본 취지가 있으며, 앞으로 매월 1회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송종남 기자



성모병원

5월 3일 개원 70주년 기념행사 개최

성모병원은 5월 2일과 3일 양일간 개원기념행사를 열어 많은 VIP와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개원 70주년 행사를 개최하였다. 1,500여 교직원들이 함께한 기념행사를 통해 비전 실천을 향한 의기 투합의 시간이 진행 되었으며 이 행사에 정진석 추기경은 저녁 6시부터 야외 주차장에서 열린 전야제 행사에 참석해 성모병원 교직원들과 함께 개원 70주년을 축하했다



초음파 이용 암 치료시대 본격화

성모병원 하이프 암치료센터 한성태·정승은(진단방사선과), 한준열·조세현(소화기내과) 교수팀은 지난 1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총 25명의 암 환자에게 칼을 대지 않고 하이프 나이프로 치료하여, 이중 23명의 환자에게서 우수한 치료효과를 얻는데 성공했다. 하이프 나이프는 고강도의 초음파를 한 곳에 집중시켜 순식간에 섭씨 65~100도 사이의 열을 발생시켜 정상조직의 손상 없이 암 세포만 선택적으로 사멸시키는 최신 종양 치료법이다. 최종성 기자



성모자애 병원

인천 최고 우수병원 평가 받아

지난 20일 발표된 79개 병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 평가에서 가톨릭대학교 성모자애병원이 인천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50년 역사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인천 지역 최초, 최고의 대학병원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켰다. 성모자애병원은 1955년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50년이라는 긴 역사를 따라 발정을 거듭하며 지역사회 의 중추적 의료 기관으로 성장했다.



초고속 초정밀 64채널 MDCT 도입

성모자애병원은 4월 10일 64채널 MDCT를 도입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2005년 11월 국내최초 토모테라피 Hi-ART를 도입하여 고통 없는 방사선 암치료로 많은 암환자에게 희망을 주었고 이번 64채널 MDCT의 도입을 통해 신속 정확한 진단도 함께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빠른 검사와 정확한 진단 그리고 고통없는 암치료까지 3박자를 가능하게 했다. 조미형 수녀



성바오로 병원

최첨단 디지털 유방촬영기 도입

성바오로병원은 최근 최첨단 디지털 유방촬영기를 도입,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디지털 유방촬영기는 직접방식의 디지털 디텍터를 장착하여 미세한 부분까지 영상화가 가능하며, 기존의 필름 유방촬영기보다 고화질 영상을 제공한다. 또한 촬영 즉시 실시간 판독이 가능해 고객 편의성을 한층 높게 됐다.



척추클리닉 오픈 - 신경외과·정형외과·재활의학과 통합 진료

성바오로 병원은 최근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와 척수 및 재활 전문의로 구성된 척추 클리닉을 오픈하고 공식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이번 척추 클리닉 오픈은 각 진료과의 척추 및 재활전문의들이 치료에서부터 재활까지 척추질환의 모든 과정을 한 장소에서 One-Stop으로 시행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가능케했다.



산동(散瞳)·무산동 검용 안저촬영기 도입

성바오로병원 안과(과장·김소열 교수)는 최근 디지털 산동(散瞳)동공이 확대되는 것, 무산동 검용 안저 촬영기를 도입



했다. 새로 도입된 안저촬영기는 동공확대를 위한 약을 넣음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불편함을 해소시킴으로써 검사 시 환자의 편의성을 높인 것은 물론 검사를 하는 사람과 환자 모두에게 최상의 조건에서 검사가 가능토록 했다. 권정훈 기자

성분도병원

부산성모병원, 6월 1일 진료개시

천주교 부산교구에서 건립하는 부산성모병원이 오는 6월 1일부터 진료를 시작한다. 부산성모병원은 30여 개의 진료과를 전문센터 형식으로 운영하여, 환우는 질병에 따라 센터를 찾아 원스톱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병원은 우수한 의료진과 최신 시설, 장비,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을 갖추고 진료개시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한편, 성분도병원은 5월 말로 진료를 마감하며 55년의 초량동 역사를 마감한다.



부산성모병원 초대원장 이종길 박사



이종길 부산성모병원원장 하용달 부산기톨릭의료원장

부산성모병원의 유지재단인 천주교 부산교구는 지난 1월 1일부터 부산성모병원장에 이종길 의학박사를 임명했다. 이종길 병원장은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보낸 것은 재단과 병원을 연결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겸손하게 말하며 임종 환우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 환우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부산 가톨릭의료원 초대의료원장에는 하용달 안드레아 신부가 임명됐다.

청각장애 환우를 위한 수화통역 서비스 실시



성분도병원의 수화통역서비스가 청각장애 환우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04년 8월부터 시작한 수화통역 서비스는 내원한 청각장애인들이 접수와 진료를 마친 후 귀가하기까지 원내 수화통역사들이 가이드 역할을 하고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서비스로 현재 2명의 전담 수화통역사가 진료안내를 맡고 있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화교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수화통역사를 배출하고 있다. 김경애 기자

성빈센트병원

볼리비아에 사랑의 의약품 전달

성빈센트병원이 낙후된 의료시설과 부족한 의약품 사정으로 외부의 손길이 절실한 볼리비아 산타크루즈시 파일라스에 600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된 의약품은 항생제, 해열진통제, 비타민 복합제, 주사제 등이며 현지에서도 도로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벽산엔지니어링을 통해 전달된다.

진료 및 검사 예약환자에게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성빈센트병원은 4월 1일부터 환자들에게 휴대폰으로 각종 진료, 검사, 입원 등 의료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문자서비스는 SMS 프로그램을 통해 예약일 2일 전에 보내지며 내용은 환자명과 예약일시, 예약 내용 등이 휴대폰 문자로 제공된다.

환자중심병원 실현을 위한 대장정 돌입

성빈센트병원은 4월 7일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 2층 회의실과 별관 세미나실에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 및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직원교육은 감염관리, CQ,

성희룡예방교육, 심폐소생술, 의료폐기물관리, 이념, 비전 및 환자권리보호로 구성됐고, 친절교육은 원내 직원으로 이루어진 친절강사가 이미지 메이킹, 고객응대, 전화예절, 인사예절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조성준 기자

성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

이천시 정신보건센터 수탁운영

성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은 1월 31일 “이천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이천시와 체결하고 2월 1일부터 정신보건사업을 본격 운영하기 시작했다. 본원 최용성 진료부장이 센터장을 맡고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명, 정신보건간호사 2명을 채용하여 센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진수 기자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CMC 비전 2020 “생명을 존중하는 세계적인 첨단 의료”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지난 1월 4일, 새해를 맞이하여 의료원 및 단위기관 보직자 및 관리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톨릭의과학연구원에서 비전 설명회 및 신년 하례식을 개최



하였다. 원목실장(이승찬 신부)은 가톨릭중앙의료원의 2020년 비전이 “생명을 존중하는 세계적인 첨단 의료”로 결정되었음을 설명하고, CMC 비전 2020을 설정한 배경을 밝혔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첨단원격의료시대 연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첨단 원격의료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기로 하고, 지난 3월 9일 오전 11시 생명연구소회의실에서 ‘원격 라이프케어공동연구센터(KRIBB-CMC U-Lifecare Research Cooperation Center)’ 설립 협정 체결식과 현판식을 가졌다. 공동연구센터에서는 개인의 신체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바이오센서(Biosensor) 기술’, 이들 정보를 의료기관에 전송하여 진단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및 임상 기술’ 등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향후 통신 및 기기개발 기업과 연계하여 상용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대구파티마병원과 세포치료 및 연구 교류 협정 체결
가톨릭중앙의료원과 대구파티마병원은 지난 2월 23일 11시 대구파티마병원에서 세포치료 및 연구 교류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대구파티마병원에 세포치료센터를 개소하였다. 양기관은 본 협정을 통하여 가톨릭중앙의료원 세포치료사업단을 중심으



로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를 위하여 공동으로 연구 및 임상적용을 수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하태경 기자

의정부성모병원

백혈병 환우의 히말라야 등반 성공

지난 2005년 12월 1일 백혈병 환우들에게 희망을 찾아주고 투병의지를 고취시키고자 떠났던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백혈병 환우들의 히말라야 원정대가 7일 낮 12시(한국 시간)에 목적지인 안나푸르나 남면 베이스캠프(4,200m)까지 무사히 도착하였다. 어려운 산행이었지만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지원한 응급의약품을 현지 주민들에게 기증하여 ‘사랑의 돌봄으로 새 생명의 희망’이라는 가톨릭 이념을 실천하기도 하였다.



경기도, 24시간 외국인 진료소 협약 체결

의정부성모병원과 경기도청은 ‘24시간 외국인 진료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경기도의 외국인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전년도부터 경기도와 병원간 협의를 통하여 진행되어 왔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 북부지역에는 의정부성모병원, 남부지역에는 아주대학



병원이 선정되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루어지는 일로 그 의미가 큰 만큼 주위의 커다란 관심 속에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료순회이동진료 사랑의 인술 12년째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순회이동진료가 지난 94년 실시된 이후 올해로 12년째를 맞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의료취약지역을 찾아 진행하고 있는 무료순회이동진료는 한여름과 한겨울을 제외하고는 1년에 30회 이상, 많을 때는 50회 이상 그 해 선정된 의료 취약지역을 순회하고 있다. 단순한 의술보다는 인간존중의 치료에 목적을 두고 진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보건향상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면서 2006년도에도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오순석 기자



청주성모병원

이웃을 생각하는 병원 10호점 선정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선정한 “이웃을 생각하는 병원” 제10호에 청주성모병원 선정되어 본원 로비에서 현판식을 갖었다. 청주성모병원은 ‘의료사업을 통한 교회이념 구현’이라는 설립이념을 실천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의료봉사 및 사회복지사업 등을 주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봉사하고 노력하는 병원이다.



무릎관절염의 진단과 치료 실시

지난 1월 18일 오후 2시부터 본원 정형외과 주관으로 “무릎관절염의 진단과 치료”라는 주제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 강좌가 열렸다. 이날 강좌에서는 280여 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석하여 무릎관절염의 원인과 치료방법, 수술 및 후휴증 예방과 관리, 치료방법 등에 대하여 강의를 경청 하였으며 강의가 끝난 후에는 그동안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서 질의 및 응답이 진행되었다.



전공의 수료식 실시

2월23일 본원 대회의실에서는 “2006년 전공의 수료식”을 개최 하였다. 이날 병원장님을 비롯하여 병원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수료식에서 병원장님은 레지던트 4명, 인턴 18명의 수료자에게 수료증과 함께 기념품을 전달하였다. 홍대기 기자

가톨릭대학교

개그맨 김형곤 씨의 사체 기증 이루어져

지난 1999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 내교하여 사체기증 서약을 한 바 있는 개그맨 김형곤 씨의 사체가 지난 13일 의과대학에 기증되었다. 평소 정치권에 대한 풍자로 날카로우면서도 부드러운 개그를 보여주었던 그의 웃음에 대한 철학



과 죽음 뒤에 자신의 육체마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 행동으로 많은 이의 귀감이 되고 있다.

2006학년도 입학미사 거행

가톨릭대학교에서는 지난 3월2일(목) 오전 10시 명동성당에서 '2006학년도 신입생 입학미사'가 봉헌되었다. 이 자리에는 가톨릭대학교 총장 임병헌 신부, 가톨릭중앙의료원장 최영식 신부, 3개교정 부총장 및 의과대학장, 간호대학장, 대학원장을 비롯하여 성직자와 보직자가 단상을 가득 메웠으며 특별히 얼마 전 또 한명의 추기경으로 서임된 정진석 추기경의 집도로 봉헌된 미사로서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센터견학 차 의과대학 방문

지난 4월 13일 국방부 직속 국군의무사령부의 의무사령관 김록권 소장을 포함한 군관계자 17명이 센터 견학 차 의과대학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의무사령부차원에서 군의 및 간호사관학교의 의학교육을 포함, 대량재해 및 국가비상사태 등과 관련된 군 시뮬레이션(Military Simulation)의 도입을 시도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센터의 선두 역할을 하고 있는 본 대



학의 의학시뮬레이션센터의 시설 및 운영, 교육관련자료 등을 알아보려고 계획되었다. 가재진 기자

대전성모 병원

어린이날 행사

대전성모병원 원목실(원목실장 이화상 신부)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소아과 병동에 입원한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 지난 3일 오후 3시부터 성모관 7병동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가졌다. 어린이날에도 몸이 아파 병원에 있어야만 하는 어린 환자들을 위한 이번 행사는 풍선나누기를 비롯하여 페이스 페인팅과 샷별회(여직원 모임)에서 마련한 인형극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본원 원목실에서 마련한 어린이날 선물을 나누는 시간으로 끝을 맺었다.



호스피스 병동 축복식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병원장 박재만 신부님)은 24일 오전 11시 천주교 대전 교구장 유흥식 주교(라자로)님의 집전으로 53병동에서 '호스피스 병동 축복식'을 가졌다. 본 축복



식은 호스피스 봉사자, 성직자, 교직원 약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본원이 2006년도 보건복지부 말기암 호스피스 지원 선정 기관 중 대전·충청권에선 유일하다는 데 의미가 크다.

부활절 계란 나눔행사

대전성모병원은 오는 4월 15일 부활대축일을 맞아 모든 교직원 및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부활 계란 바구니와 떡 나눔의 행사를 마련했다. 본원은 이를 위해 떡 세트 500개와 계란 4000개를 준비, 행사 당일 손수 만든 카드와 함께 바구니에 담아 환자들과 그동안 도와주신 진료의뢰 병원 및 관공서에도 이를 선물했다. 장진화 기자



창원파티마 병원

병원장 이·취임식

지난 2월 17일, 창원파티마병원 제5, 6대 병원장 이·취임식이 있었다. 재단이사장을 비롯한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이번 이·취임식에서 제5대 장증태(Sr.잔 마리) 전임 병원장은 지난 6년간을 회고하며 우리 병원의 발전을 기원했고, 제6대 이인숙(Sr.마리 루이즈) 신임 병원장은 취임사에서 고객들에게



인정받는 위대한 병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했다.

창원 파티마병원, 전국의료기관평가 'A' 13개

창원파티마병원이 '2005년도 전국의료기관평가'에서 우수병원으로 선정되었다. 지난 4월 20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창원파티마병원은 총 18개 평가부문 중 환자의 권리와 편의, 진료체계, 감염관리, 중환자 등 13개 부문에서 A등급, 5개 부문에서 B등급을 받았다. 이는 수도권 대학병원을 포함한 전국의료기관 비교에서 5위에 해당되며 대학병원을 제외한 대형종합병원(병상수 400~499) 중에서는 최고의 성적이다.



가난한 환자 진료비 지원 위한 Sharing 기금 1주년 행사

지난 3월 27~29일 3일간 창원파티마병원에서는 가난한 환자 진료비 지원을 위한 Sharing 기금 발족 1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Sharing 기금은 진료가 절실히 필요함에도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웃들의 진료비 지원을 위해 지난해 3월 뜻있는 의료진을 중심으로 발족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후원자의 뜻을 기리기 위한 후원자 보드 부착식을 시작으로 모금 캠페인과 기념 음악회가 있었는데 많은 내·외부 후원자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강민수 기자



성기병원

의료기관 평가 전국 2순위

가톨릭대학교 성기병원은 2006년 4월 2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5년도 의료기관평가'에서 18개 평가 항목 중 14개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아 400~500병상 '전국 2 순위' 우수병원으로 인정 받았다. 가톨릭대학교 성기병원은 전국 4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대형병원 (36곳) 평가에서 14개 부문에서 우수(A)등급을 받아 15개 부문 우수(A)등급을 받은 3개 기관에 이어 2순위에 랭크되었다.



외래검사 통합예약 시스템 재구축으로 환자 만족 증대

가톨릭대학교 성기병원은 2006년 2월 핵의학 검사를 포함한 외래검사 통합예약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환자 및 보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검사실 및 각 임상과의 업무효율화를 높여 내·외부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올해는 핵의학검사에 관한 전문 간호사를 교육, 추가 배치하고 핵의학검사를 포함한 전문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 창구에서 검사예약, 설명, 진료예약 및 변경까지 가능한 One-Stop 외래검사 통합예약 시스템 재구축하게 되어 환자 이용편의뿐만 아니라 임상부서 간 업무효율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QI 활동은 병원발전에 중요한 밑거름

가톨릭대학교 성기병원 QI실(위원장 : 권순석 교수)은 2006년 1월 11일 성요셉관 5층 대강당에서 300여 명의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 9회 QI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파트별 전문분야에서 환자를 위한 최상의 방법을 모색하여 의료의 질 향상 및 팀별 업무개선의 목표를 가지고 실시된 이날 발표회는 10개 팀의 구연발표와 17개 팀의 포스터 발표로 진행됐다. 윤영선 기자



포항성모병원

필리핀 해외 의료봉사단 파견

포항성모병원(병원장 김옥희)이 병원이념실천 및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지난 3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총 16명으로 구성된 포항성모병원 의료봉사단을 마닐라 외곽 빈민지역에 의료봉사단을 파견하였다. 이 지역의 현지인들은 대부분이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로 고혈압 당뇨 등 지병이 있으면서도 전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어린 아이 구분 없이 영양상태가 좋지 않고 불결한 생활환경으로 각종 질환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봉사단은 전했다. 김판섭 기자

